

<Venture Digest>는 벤처기업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드립니다.

신제품, 신기술, IR소식 등 알고 싶은 뉴스를 보도자료(기사, 사진)와 함께 협회 홍보팀으로 보내주세요.

협회 홍보팀 박미선 주임(02-6009-4100, 내선 301, Fax. 02-6009-4115, E-mail : pmsun@kova.or.kr)



### 손오공, '구슬대전 배틀비드맨' 사업설명회 개최

종합 엔터테인먼트사인 손오공(대표 최산규)은 8월 5일 코엑스에서 '구슬대전 배틀비드맨' 프로젝트를 활용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구슬대전 배틀비드맨'은 한국 전통놀이인 구슬치기를 바탕으로 개발된 사업으로 52부작 애니메이션, 100여 종의 비드맨 완구 시리즈, 아동용 PC게임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이는 원소스 멀티유즈(OSMU) 사업으로 총 100억여 원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다.

손오공은 애니메이션을 8월 12일부터 KBS를 통해 방영하고 완구는 8월말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또 멀티게임이 지원되는 PC게임은 오는 10월 출시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완구제품 출시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우선 오는 11월까지 수도권 2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물 배포, 구슬대전 배틀비드맨 시연 및 시범, 기념품 제공 등의 1차 로드쇼와 또 전국 5대 도시를 중심으로 34개 지역에 '구슬대전 배틀비드맨 배틀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 잉크테크, 산업용 잉크사업 강화

잉크테크(대표 정광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산업용 잉크(Large Format Printer)를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잉크테크는 이를 위해 현수막, 초대형 게시판, 무대장치 인쇄 등에 사용되는 오일 잉크, 솔벤트 잉크 등 다양한 산업용 잉크 신제품을 개발하는 한편 산업용 잉크 제품군에 대한 벌크(Bulk) 판매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영국에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독자브랜드 정책을 일부 수정, 대형 거래선들과의 OEM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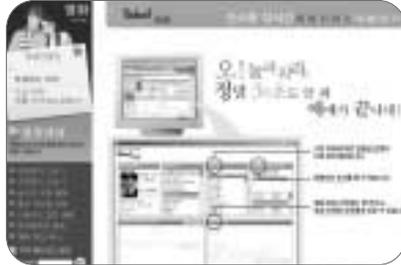
잉크테크는 지난해 총 325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가운데 산업용 대형 프린터용 잉크사업(LFP:Large Format Printer)에서는 172%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나타냈다. 잉크테크는 최근 산자부로부터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로 선정, 차세대 잉크젯 기술 분야인 '기능성 잉크와 디지털 프린팅의 응용기술 개발' 연구에 5년간 최대 25억원의 기술개발비를 지원받게 됐다.

### 유비케어, EMR과 수탁검사 연계한 의료정보화 서비스 추진

의료정보화 전문업체인 유비케어(대표 김진태)가 의원 전자차트(EMR)와 수탁검사를 연계하는 새로운 유형의 의료정보화 서비스를 선보인다.

유비케어는 이를 위해 수탁검사전문기관 네오던의학연구소와 전략적 사업체휴를 체결하고 수탁검사 연계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R과 수탁검사를 연계하는 서비스는 검사를 위탁하는 병의원과 검사를 대행하는 수탁검사기관 간의 진행되는 제반 업무를 EMR과 연계하여 온라인 자동화하는 것으로, 기존의 수탁검사와 관련하여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오던 업무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통합, 개선시킬 수 있는 서비스다.

유비케어는 우선 1단계로 수탁검사의 결과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인터페이스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개발 마무리 단계이며 내달부터 병의원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 씨엔에스테크놀로지, '사랑의 비주얼 나눔' 캠페인

씨엔에스테크놀로지(대표 서승모)는 8월 9일 창립 11주년을 맞아 서울 논현동 사옥에서 기념식을 갖고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랑의 비주얼 나눔' 캠페인을 벌여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씨엔에스테크놀로지는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전종수 단장을 창립기념식에 초대, 자사 영상전화기인 비주얼 80대를 후원하는 내용의 협약식을 가졌다. 씨엔에스테크놀로지는 매 분기 20대씩 1년간 총 80대(4000만원 상당)의 영상전화기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무상 기증하고, 이후에는 1000대가 판매될 때마다 영상전화기 1대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시각장애인, 노인 등 정보소외층에 영상전화기를 무상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씨엔에스테크놀로지 서승모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자임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풍요로운 정보문화 활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티켓링크, 논스톱 실시간 영화 예매

티켓링크(대표 우성화)는 인터넷사이트의 한 페이지에서 영화티켓 예매를 마칠 수 있는 '논스톱 실시간 예매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영화와 극장 선택, 관람일과 시간 확인, 결제수단 선택 등 예매에 필요한 과정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 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한 페이지 내에서 마칠 수 있어 사용의 편리성을 높였다. 각종 영화목록과 영화관, 예매 진행순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예매완료 이전에는 영화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또한 티켓링크는 8월 31일까지 모든 회원들 대상으로 '논스톱 실시간 예매서비스 오픈 기념 페스티벌'을 실시한다. '이름 맞추기', '체험하기', '축하 메시지 남기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회원들에게 DVD플레이어, 오디오세트, 디지털 카메라, 영화 예매권 2백매(1백쌍) 등 푸짐한 선물을 제공한다. 추첨일은 9월1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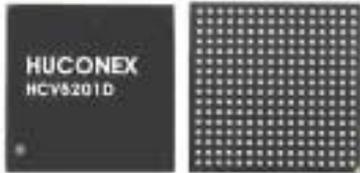
### 더존디지털웨어, 네오픈플러스Ⅱ 무료배포행사

경영정보솔루션 전문업체인 더존디지털웨어(대표 육근승)는 자사의 경영정보관리솔루션 '네오픈플러스Ⅱ' 출시 1주년을 기념해 8월 한달간 중소기업에 '네오픈플러스Ⅱ'를 무료로 배포하는 행사를 벌인다.

더존디지털웨어는 행사기간 중 네오픈플러스가 필요한 사연을 적어보낸 중소기업 가운데 50개 업체를 선정해 필요한 모듈을 지원한다. 행사 참가업체 모두에게 네오픈포트 프리미엄 무료이용권과 어카운트매니저 무료이용권도 제공한다.

한편, 더존디지털웨어는 김재민 대표이사가 사임의사를 밝혀 개발본부장인 육근승 상무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7월 28일 밝혔다.

신임 육근승 대표이사는 더존디지털웨어의 창업멤버로 SMB사업본부장, 개발본부장 등을 지냈다. 육근승 신임 대표는 "앞으로 체계적인 고객 마케팅과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구축해 중소기업시장을 선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n 안철수연구소

**안철수연구소, 상반기 순익 40억** 안철수연구소(대표 안철수)는 상반기 결산 결과 매출액 139억3000만원, 순이익 40억2000만원을 기록, 전년 동기대비 각각 16.8%, 1046.9%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영업이익과 경상이익도 각각 41억9000만원, 49억2000만원으로 나타나 각각 190.2%, 842.2% 늘어났다.

안철수연구소는 하반기에도 신성장 엔진사업을 토대로 보안 컨설팅사업과 신규사업을 통해 수익성과 성장성의 확대를 동시에 꾀한다는 전략이다. 또 스팸메일 차단기능을 강화한 '게이트스캔'을 비롯해 일본 시장을 겨냥한 'V3 바이러스블록2005' 등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레인콤, 하반기 매출액 2527억원 예상** 레인콤(대표 양덕준)은 8월 5일 공시를 통해 하반기 매출액이 2527억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82%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발표했다. 또 영업이익은 426억원으로 34%, 경상이익은 376억원으로 40%, 순이익은 323억원으로 28%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레인콤 관계자는 "상반기 출시한 제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매출이 계속 성장세에 있으며 하반기 출시 예정인 전자사전, 동영상 재생 플레이어가 매출과 이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피카소정보통신, 상반기 매출 85억 순익 7억원** 피카소정보통신(대표 김동연)은 지난 상반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 85억8100만원, 순이익 7억9100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매출은 17.44%, 순이익은 7.18%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상반기 영업이익(5억2200만원)과 경상이익(6억1800만원)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26.48%와 20.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카소정보통신 관계자는 "매출이 미국 시장에 편중된 데다 올 상반기 기대했던 일본 시장 매출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다소 저조한 결과를 나타냈다"며 "하반기에는 개선된 실적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쓰리넷, SICAF 전시회 참가

이쓰리넷(대표 성영숙)은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박람회인 '2004 SICAF'에 모바일 전용 '주간만화 몽크', 모바일게임 '동전쌓기'의 5종의 게임을 출품했다.

휴대폰에 최적화시킨 '주간만화 몽크'는 만화를 모바일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였고, 문화콘텐츠 영역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전시장 안에서 자사의 모바일게임인 '동전쌓기'와 '동전판치기'의 오프라인 이벤트도 실시하였다.

한편, 이쓰리넷은 4일 일본 모바일 퍼블리싱 업체인 미디어링과 계약을 맺고 '러쉬러쉬'를 8월말부터 KDDI를 통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선보여 호평을 받았던 이 게임은 일본 환경에 적합한 현지화작업을 거쳐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로써 이쓰리넷은 자사 '동전쌓기' 게임을 중국, 대만에 수출한 데 이어 서비스 대상을 일본까지 넓히게 됐다.

## 휴커넥스, 칩 中 표준 적합성 시험 통과

국내 벤처기업이 설계한 초고속인터넷 칩이 중국 진출을 눈앞에 두게 됐다. 국내 비메모리 벤처업체인 휴커넥스(대표 이기주)는 7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실시된 중국의 VDSL 표준 적합성 시험에서 자사의 칩 솔루션이 시험을 통과, 중국 신식산업부 정보통신연구소의 성능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의 성능 인정 시험은 중국 표준규격을 적용한 각종 측정장비로 휴커넥스의 칩에 대한 기능 및 성능 등을 점검한 것이다. 중국의 경우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통신장비업체 등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xDSL 가입자가 1800만명을 넘은 상태며 월 100만명 이상씩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이다. 중국 정부는 ADSL 가입자 증가에 힘입어 VDSL서비스를 내년 중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중국의 최대 통신사업자인 차이나텔레콤이 VDSL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